

KBS지역방송국 폐쇄반대 전국행동

2020.7.1. 수 11:00 여의도 KBS본사 항의집회, 500명 참가

2020.7.1. 14:00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개최

원주시 일산로 73 2F T 033. 731. 1364 www.wjngo.or.kr

보도자료 7.1 화 분량1P 담당 이선경 공동대표 010-2225-1364

- ▶7월 1일 청와대, 여의도 KBS 본사 잇따라 항의집회, 전국 500명 상경투쟁
- ▶7월 1일, 11시, 여의도 KBS 본사 정문 앞
- ▶7월 1일, 2시, 청와대 앞
- ▶지역균형발전 가로막는 7개 KBS지역방송국 폐쇄 절대반대
- ▶시청자 주권 박탈, 지방분권 가로막는 지역방송국 폐쇄계획 백지화 촉구
- ▶청와대가 나서야, 지방분권 역행하는 KBS 지역방송국 폐쇄반대
- ▶KBS는 <TV방송허가권 반납> 철회하고, 백지화 하라!
- ▶KBS는 <9시 로컬뉴스>를 살려내라.
- ▶청와대는 줄속으로 추진하고, 지역사회 주민, 시청자, 정치권의 의사를 철저하게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KBS 양승동 사장을 해임하라.

○...KBS지역방송국 폐쇄반대 전국행동 (상임대표 장작중)는 7월 1일 오전 11시 여의도 KBS 본사에서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<TV방송허가권 반납>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한다. 오후 2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, 원주, 목포, 포항, 순천, 안동, 진주, 충주 등 7개 지역KBS방송국 폐쇄계획 철회를 촉구하며, KBS본사가 일방적으로, 줄속으로, 지역의사를 철저하게 왜곡하며 추진하고 있는 <TV방송허가권 반납> 백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. 또한 책임을 물어 KBS본사 양승동사장과 김영삼 국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.

○...현재 원주, 목포, 포항, 안동, 순천, 진주, 충주 등 7개 지역방송국 폐쇄를 위한 <지역 TV방송허가권 반납>은 KBS 본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총 5차례 보정요구를 받고 계류 중에 있으며. 지난해 부터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. <이상끝>